



무한한 도약의 꿈을 안고

김 영 석 / 학교장

만수 별판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일곱 학급(405명)으로 文一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미완성 학급인 채 완성 학년이 되어 29학급(1,656명)이란 대가족으로 튼튼한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신설 학교라는 멍에를 벗어 던지고 기라성처럼 우뚝 선 文一女高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실력있는 文一, 남에게 지지 않는 강한 文一로 이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배움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새 학교의 새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온 학생 여러분들의 노고와 이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만발들인 3학년의 졸업이 가까워지고 대학입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3년간을 그려온 우리 文一女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손질하여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내보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윤곽이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예쁜 얼굴이 예상되지만 어쩐지 긴장이 되고 염려되는 마음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1·2학년 동생들도 3학년 언니들이 쌓아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굳건히 다져나감은 물론 또다른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는 데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文一 졸업생답게 文一 졸업생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한국 여성상의 표본이 될수 있음을
과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文一의 첫 졸업생들인 3학년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文一女高에 학적을 둔 文一가족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학교가 내걸은 학생상에 도달하고 접근하기 위하여 3년간이나 교육을 받아 왔읍니다. 성실하고 근면하며 자율능력을 갖춘 예비숙녀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 없는 훌륭한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졸업 후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든지 사회로 진출을 하든지 성실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밴 여성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허영이나 사치를 배격하고 장차 부지런하며 알뜰한 엄마가 되어 후손들에게 숭선수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나라의 장래는 촉망될 것이며 선진 조국 창조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니 文一 졸업생답게 文一 졸업생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한국 여성상의 표본이 될수 있음을 과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교지를 펴냄에 있어 애쓴 편집위원회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훌륭한 내용의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 어른들께 고마운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